

못넘긴 5할...자존심 구긴 '디펜딩 챔피언'

부상·부진에 타선 곳곳 빈틈
선발·마무리 견고함도 실종
불펜 경쟁에 후반기 반전 기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4회말 무사 1,2루 KIA 김기태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제공)

5할도 넘지 못한 '디펜딩 챔피언'의 쓸쓸한 전반기였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를 끝으로 2018시즌 전반기를 마무리했다. '5할 자존심'을 위해 마산으로 왔지만 시리즈 첫 경기부터 역전패를 기록하면서 5할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우승멤버'들의 부상과 부진=KIA는 지난해 V11의 영광에 있던 '우승 멤버' 그대로 전력을 꾸려 2018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타선의 폭발력과 선발과 마무리의 견고함은 없었다. 이병호, 안치홍, 김선빈이 연달아 사구에 맞아 재할군이 됐었고 배나디나도 우측 허벅지 통증으로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 현재는 이병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다시 빠졌고, '캡틴' 김주찬도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다. 그리고 지난해 94타점을 책임졌던 나지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2군으로 내려가 있다.

'물러온 복병'이 됐던 외야수 이명기와 포수 김민식 역시 부진으로 2군에 다녀오는 등 타선 곳곳에 빈틈이 생겼다. 마운드에서는 두 외국인 선수 핵터와 팻딘이 10승밖에 합작하지 못했다. 핵터의 매서움이 떨어졌고, 팻딘은 계속된 불운 속 슬럼프에 빠진 모습이다. 뒷문 단속을 해줬던 김세현의 부진은 특히 치명적이었다. 올 시즌 두 차례나 2군에 다녀오는 등 21경기에서 무려 11.2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선발 한 축을 책임졌던 임기영도 부상 이후 완벽한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우승 멤버들의 부상과 부진에 속스러운 '디펜딩 챔피언'이 됐다. ◇무더진 창과 한계 드러난 방패=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에는 타선의 집중력이 뚝 떨어졌다. 시즌 초반 3할이 넘는 타율로 팀 타율 1위 자리를 지키기도 했지만 효율성은 떨어졌다. 0.362의 출루율로 선두 1위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홈까지 가는 길이 멀다. 기동력이 떨어진 타선은 기회마다 흐름을 끊고 병살타를 남기며 답답한 경기를 이어왔다.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85경기를 소화했지만 93개의 병살타로 2위 LG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지면서 수비 실수는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올 시즌 KIA는 53개의 실책으로 최소 실책 5위에는 자리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에러가 많았다. 또 '공격형 타선'의 기록되지 않은 실수도 잦았다. 수비 시프트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약한 수비를 만회하는 폭발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올 시즌은 무더졌고 그만큼 수비 약점은 두드러지고 있다. ◇'경쟁'이 남겨 놓은 희망= 곳곳에 숙제가 남았지만 후반기 반전을 이룰 희망은 있다. 불펜에 거세게 불고 있는 '경쟁'의 바람이 그것이다. 지난해에는 막강 선발과 화력에 비해 불안한 불펜이 약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올 시즌 젊은 투수들의 치열한 내부 경쟁이 전개되면서 불펜은 성장세를 보인다. 고졸 2

년 차 투수 유승철이 예상치 못했던 활약으로 1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좌완 임기준도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에 오르고 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황인준도 마당쇠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문경찬의 씩씩한 피칭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세현의 부진에도 김윤동이 묵묵히 역할을 하고 있고, 윤석민과 임창용이 경험으로 뒷문 수성에 나서면서 불펜은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타석에서도 류승현과 신병수 등 새 얼굴이 '깜짝 활약'으로 선배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김기태 감독은 "선수들이 열심히 해줬는데 미안하다. 안 된 부분들이 많아 팬들에게 죄송하고 후반기에는 준비 잘해서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 탬파베이 데뷔전 멀티히트 활약

2루타 포함 2안타

최지만이 탬파베이 레이스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경기에서 2루타를 포함한 멀티히트(한 경기에서 2안타 이상)를 달성하며 인상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최지만은 12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 경기에 탬파베이의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쳤다. 이날 경기는 최지만의 탬파베이 데뷔 전이자 메이저리그 복귀전이였다. 올해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시즌을 시작한 최지만은 지난해 11일 트레이드를 통해 탬파베이로 옮겼다. 최지만은 이적 후 한 달 만인 11일 탬파베이의 25일 로스터에 들며 메이저리그로 복귀했다. 최지만이 메이저리그 경기에 나선 것

은 밀워키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대타로 출전해 빅리그 통산 첫 만루홈런을 터트린 이후 32일 만이다. 1회말 2사 1·2루에서 유격수 팜블로 아웃된 최지만은 1·0으로 앞서 나가던 3회말에는 1사 2·3루 기회에서 3구 삼진으로 물러났다. 최지만의 첫 안타가 터진 것은 탬파베이가 1·2로 끌려가던 6회말이다. 선두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좌전 안타를 터뜨렸다. 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탬파베이가 4·2로 역전한 7회말에는 짐머맨에게 공 11개를 던지게 한 끈질긴 승부 끝에 좌익선상 2루타를 날려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날 탬파베이는 4·2로 이기며 5연승 행진을 벌였다. /연합뉴스

웬블던 퇴장 페더러 "내년에 돌아올 것"

9일째 일정을 소화한 올해 웬블던 테니스대회에서 가장 큰 뉴스는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의 쓸쓸한 퇴장이다. 페더러는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남자단식 8강전에서 케빈 앤더슨(8위·남아공)에게 2-3(6-2 7-6(7-5) 6-7(5-7) 5-7 11-13)으로 역전패를 당했다. 1999년 이후 20년째 웬블던만은 한번도 거르지 않고 출전했던 페더러가 이 대회 세트스코어 2·0에서 내리 3세트를 내줘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이저대회 통산 20회 우승에 빛나는 페더러는 웬블던에서만 8차례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전지 코트의 황제로 군림했다. 올해 그는 호주오픈 정상에 오른 뒤 클레이코트 시즌을 건너뛰면서까지 웬블던을 준비했지만, 앤더슨에게 밀리가 잡혔다. 먼저 1세트와 2세트를 잡아내며 웬블던 34세트 연속 승리 4강 티켓을 눈앞에 두는 듯했던 페더러는 3, 4세트에서 매치 포인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5세트로 끌려들어 갔다. 웬블던은 최종 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 없는 '끝장 대결'을 벌인다. 페더러는 5세트 게임 스코어 11-11에서 이날 경기 첫 더블볼트를 범해 서브스 게임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다. 올해 만 37세인 페더러에게는 메이저 대회 매 경기가 언제든 마지막이 될지 모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웬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케빈 앤더슨(8위·남아공)과의 웬블던 대회 남자단식 8강전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르는 소중한 기회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페더러는 "이곳에 앉아서 상실감을 이야기하는 게 테니스 선수로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기분"이라며 "회복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다. 잠시가 될지, 30분이 될지는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낙담했다. 이어 그는 "물론 목표는 내년에도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애써 미소 지었다. /연합뉴스

우타자 최다안타 기록 정성훈 "치홍이처럼 치고 싶다"

임기준 "포수 밟고 던졌다"에 한승택 "별생각 없던데..."

으로 돌아와 57경기에서 0.344의 타율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은 냈지만 정성훈은 "내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 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후반기에 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포수 밟고 놓는다는 생각? = 임기준이 KIA 불펜 유일의 좌완 투수로 좋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준은 지난 11일

NC와의 경기에서 0-4로 뒤진 7회 2·3루에서 핵터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왔다. 임기준은 공 4개로 나성범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추가 실점의 위기를 넘겼다. 임기준은 "포수 밟고 놓는다는 생각으로 포수를 밟고 던졌다"고 삼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을 받은 포수 한승택의 이야기는 달랐다. 옆에서 임기준의 이야기를 들은 한승택은 "별생각 없이 던지는 것 같았

다. 사인을 세 번이나 틀었다"고 웃었다. ▲괜찮아요 = 한여름 감기로 고생하는 배나디나. 그는 지난 11일 경기에서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지만 4회말 수비에서 이명기와 교체됐다. 이유는 '몸살 기운'이었다. 에어런 찬바람과 그라운드 뜨거운 열기 사이를 오가느라 감기에 걸린 것이다. 경기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던 배나디나는 12일 "어제보다 낫다. 괜찮다"며 훈련은 했지만 선발 라인업에서는 빠졌다. 배나디나를 대신해 전반기 마지막 경기는 박준태가 중견수 자리로 들어가 경기를 치렀다. /마산=김여울 기자 wool@

덕아웃 T 특독

▲치홍이처럼 치고 싶다 = 20년 차 정성훈이 달내는 안치홍의 타격이다. 정성훈은 최다경기 출장 기록과 KBO리그 우타자 최다안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타자다. 하지만 정성훈은 안치홍이 부럽다. 12일 타격훈련을 끝낸 정성훈은 잠시 안치홍의 타격을 지켜본 뒤 덕아웃으로 들어왔다. "치홍이처럼 치고 싶다. 부럽다. 3할 7푼"이라며 정성훈은 이내 발걸음을 돌려 다시 그라운드로 나가 공을 몇 개 때린 뒤 훈련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 친정

산행안내

해의 계절불가

7월 14일(토)
▲광주K산악회 7월 14일(토) 경남 함양 군마천면 지리산철선계곡(백무동-두지동~출렁다리-선녀탕-비선담-두지동~추성리주차장), 영주체육관 07:30, 건강관리협회 07:35, 돌고개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승강장 07:55, 비엔주차장 08:00 (로얄관광)우천에도 진행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광주호산회 7월 14일(토) 포천 산정호수 한탄강 하늘다리, 05: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2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우 ※다음카페 광주호산회(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7월 15일(일)
▲광주벽암산악회 7월 15일(일) 장성호수길, 월드컵주차장 07:00, 문예후문 07:20, 북부경찰서 07:30, 문흥현대 07:40 ※다음카페 광주벽암산악회 ☎ 010 2425 4300, 010 3604 8589

▲전남산악회 7월 15일(일) 충남 예산 가야산(678m), 석문봉, 무장포해수욕장, 영주체육관 06:30, 온진각약, 양동, 광주역 07:00, 두암동흥플러스 07:10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3642 5197, 010 5378 5702

▲광주새무등산악회 7월 15일(일) 경남 함양군(영취산, 부전계곡) 산행, 07:40 부일공영사, 광주역 08:00, 예술회관후문경우 08:10 ※다음카페 광주새무등산악회 ☎ 010 3616 6300, 010 3901 5667

▲빛고을무지개산악회 7월 15일(일) 부안 위도, 06:00 영주체육관, 06:20 학동·증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6:40 광주역, 06:45 문예회관후문, 06:50 동광주예민프리카 ※다음

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7월 1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7월 18일(수) 충북 옥천 월이산(551.4m)/옥계폭포,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7월 21일(토)
▲광주토요산악회 7월 21일(토) 파주, 마장호, 감악산, 출렁다리와 수변길 트레킹, 05:50(문예후문 경우) ※다음카페 광주토요산악회 ☎ 010 3608 4267

▲광주호산회 7월 21일(토) 덕유산 원주리 꽃 산행, 06: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7:0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우 ※다음카페 광주호산회(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금당산악회 7월 21일(토) 부안 변

산반도 마실길 고사포 트레킹, 봉선동 롯데마트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앞 07:40, 문예회관 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07: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7월 22일(일)
▲광주산사모산악회 7월 22일(일) 지리산 피아골(성삼재-반야봉-피아골), 06:30 영주 모아레포츠 입구, 07:05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20 비엔날레 주차장, 07:30 문화예술회관 후문 앞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악회 ☎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자연보전단사회 7월 22일(일) 함백산(1573m) 강원도 정선군)-금대봉(1418m) 야생화 테마 트레킹, 영주체육관 03:40, 무등경기장 04:00, 동광주휴플러스 04: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단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7월 25일(수) 전남 고흥 봉래산(410m)/나로도해수욕장,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 010 8612 4504, 010 3000 1134

7월 28일(토) 해파랑길 14구간, 05:0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5:20 롯데백화점 문화예술회관 경우 ※다음카페 광주호산회(http://cafe.daum.net/gwangjuhosan)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출신의 기쁨을 예쁘고 복(福)받는 이름으로!
이름
[작명, 개명]
●사람의 이름은 참되고(眞) 선하며(善) 아름다워(美)야 합니다. 정(正)명(名)행(行) 이름이 바르면 모든 길은 순통(通)일이 손꼽니다 -논어-
●이기이름, 개명, 법인상호, 개업상호 ※시외는 팩스 또는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작명 전문 **광주이름나라**
NAVER 광주이름나라
전화문의 영 | 010-6808-1693
환 | (062) 365-340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황희정(760215-XXXXXX)
● 최후주수 : 광주 남구 양림로 14, 1007호 (백운동, 스카이맨션)
피상속인 망 황희정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18년 936호로 신청하여 2018년 6월 2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으면 채권이 지체되면 청산으로 처리됩니다.
2018년 7월 13일
● 상속인 : 김민성(970205-XXXXXX)
광주 남구 양림로 14, 1007호(백운동, 스카이맨션)
● 신고기간 : 2018. 7. 13 - 2018. 9. 23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김민성 주소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엔트맨과 와스프
2관	엔트맨과 와스프
3관	엔트맨과 와스프, 변산
4관	마녀
5관	엔트맨과 와스프
6관	엔트맨과 와스프
9관	탐정: 리턴즈
7관	씨네커플 변산, 탐정: 리턴즈, 오션스8
8관	씨네커플 마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전 여름이야기	7. 11(수) ~ 8. 5(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11시 클래식 산책 수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	7. 17(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청소년음악회 소프라노 홍혜란의 DIVA IN NEWYORK	7. 19(목) pm 6: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백만상자&더블루이즈	7. 25(수) pm 7: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